바이오벤처, 자금난 "심각"

코스닥 등록기업도 자금난 … 인수·합병 잇따를 전망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량 바이오기업과 제약기업들에는 영세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인수제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코스닥에 등록된 일부 바이오기업조차도 자금난을 못 이긴 나머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공학연구원 입주기업인 리얼바이오텍은 최근 충남 조치원에 짓고 있는 공장의 설비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활성탄을 이용한 매트리스 제조기업인 그린포리스트(대표 이춘옥)에 경영권을 넘겼다.

리얼바이오텍은 기능성식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Levan(과당이 수만개 결합된 고분자)을 생산하는 회사로 기존 대표이사인 김철호 박사가 그린포리스트에 경영권을 넘기고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월 6톤의 레반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자금 35억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바이오메디아(데표 조신형)는 최근 모 바이오벤처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고, 기술력과 생산제품의 시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모 코스닥기업은 등록 후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현재 로펌 등을 통해 비밀리에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약 개발을 목표로 했던 모기업은 직원들의 월급을 몇달째 주지못한 채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많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수·합병과 폐업, 휴업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3>